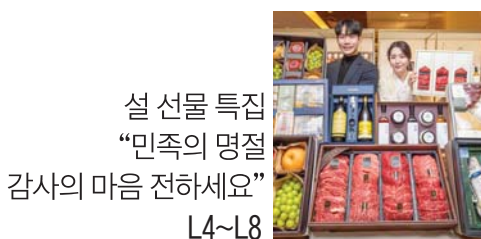


9일 Market Index			
코스피	5298.04	코스닥	1127.55
(+208.90)		(+46.78)	
금리 (국고채 5년)	3.267	환율 (미·달러)	1462.90
(+0.034)		(-6.60)	



설 선물 특집  
“민족의 명절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L4~L8

# 中 파상공세… K-전기차, 안방사수 안간힘

작년 신규등록 수입전기차 43% ‘가성비 전략’ BYD, 6153대 판매 지커·샤오핑 등 국내진출 예고

EV5 롱레인저·EV6 가격인하 등 현대차·기아, 점유율 방어 총력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간 점유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수입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산 브랜드의 점유율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가성비를 앞세운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현대차·기아의 안방 사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22만177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산 전기차는 9만4947대로 43%를 차지했다. 수입산 전기차 비중이 40%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중형 전기 SUV 모델 Y(5만 397대)가 전체 판매량을 이끌었고 지난해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 중국 BYD는 초기 보조금 논란에도 ‘가성비’ 전략을 내세워 6153대를 판매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 기아는 6만609대로 1위를, 현대차는 5만5461대로 3위를 차지하며 2위 테슬라(5만9893대)를 바짝 뒤쫓고 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가득 쌓인 ‘설 자금’

설 연휴를 앞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자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공동취재

지커와 샤오핑 등이 한국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어 국산 브랜드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BYD는 올해 소형 해치백 ‘돌핀’을 공개하며 ‘가성비’ 기조를 이어간다. 돌핀의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후 보조금 전용 전 기준으로 2450만원이다. 도합형 전기차 시장에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BYD코리아는 올해를 한국 승용 시장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연간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설정했다.

지커와 샤오핑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 법인 설립과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구축

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신차 판매에 나선다. 이들 업체들은 800V 초고압 충전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 국내 완성차 업체와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아는 연초부터 준중형 전기 SUV EV5 롱레인저 모델과 EV6의 판매가격을 각각 280만원, 300만원 인하했다. EV5 스탠다드 모델은 정부·지자체 보조금 등을 적용할 경우 실구매가가 최대 3400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가격 인하보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금리 혜택을 확대 운영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현대 EV 부담 다운 프로모션’의 모빌리티 할부 기준 금리를 기존 5.4%에서 2.6%포인트 인하한 2.8%로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중국산 브랜드의 가성비 전략에 맞춰 경쟁 업체들의 가격 인하 정책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 구조와 브랜드 경쟁력이 앞으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연속 백덤블링 거뜬 현대차 ‘아틀라스’ 실전투입 훈련 돌입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의 생산 현장 투입을 앞두고 최적화를 위한 혹독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전신 제어 학습을 끝내고 본격 실전 투입 훈련에 돌입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탠다이나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옆돌기와 백 텀블링을 연속으로 시연하는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CES 2026 이후 처음 공개되는 아틀라스 영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아틀라스가 개별 동작을 넘어 기계제조 선수와 같이 유연하게 전신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공중제비 후 착지 과정에서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적으로 자세를 회복하는 모습은 전신 제어 알고리즘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영상 공개 기계제조 선수처럼 전신 제어 실패영상 노출, 학습과정 보여줘 “최종 검증 마쳐… 현장투입 훈련”

이번 영상에서는 아틀라스의 실패 영상도 함께 공개돼 더욱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보스탠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동작 수행 중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실패 영상도 여과 없이 노출함으로써, 인공지능 강화학습을 통한 성능 개선 과정을 보여줬다.

보스탠다이나믹스 측은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가동에 따라 연구용 버전의 성능 테스트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로보틱스·AI(RAI) 연구소와 협력해 이동성 한계를 시험하는 최종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연구 단계를 마친 아틀라스는 이제 현대차그룹의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되어 실전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도입해 부품 분류 및 서열 작업을 맡기고, 2030년부터는 정교한 부품 조립 공정까지 작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아틀라스가 백 텀블링을 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 인터넷은행 ‘영토 확장’… 해외에 비대면 금융모델 이식

카카오뱅크, 태국 SCBX와 맞손 하반기 현지에 ‘가상은행’ 출범 케이뱅크, 韓·중동 송금망 고도화 국내 BPMG·UAE 체인저와 협력

비대면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해외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규제가 엄격한 국내 금융산업 특성상 내부 경쟁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영업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에 강점을 가진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금융모델을 이식하며 현지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국 내 ‘가상은행(Virtual Bank)’을 출범할 예정이다. 지

난달 말 양사는 가상은행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현지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선제적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에 1140억원을 투자했고, 슈퍼뱅크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가치는 2044억원 수준으로, 초기 투자금(1140억원)을 크게 웃돈다.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모바일 금융 시스템 구축과 운영 노하우 전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케이뱅크도 해외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 UAE 디지털자산 기업 체인저와 협력해 한국-중동 간 국제 송금망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케이뱅크는 원화 정산을, 체인저는 디르함 정산을 맡고, BPMG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및 환전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현재 원화-디르함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술 검증(PoC)에 착수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국제송금망의 속도와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 역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그간 축적해온 간편 송금·여수신 서비스 역량과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편성, 투명한 비용 구조, 사용자

경험(UX)을 차별화 요소로 삼아 현지 규제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룬 인터넷은행들이 이제는 ‘수익 다변화’와 ‘플랫폼 수출’이란 과제를 안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단순 진출을 넘어 현지 금융 생태계에 얼마나 깊숙이 안착할 수 있을 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사실상 성숙 단계에 접어들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의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외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지 규제 이해도와 파트너십 안정성,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5.8% ‘잘못한다’ 39.1% /사진 뉴시스  
▲김 총리 “서울시장 안 나간다…지금은 국정에 전념”

▲하정우 靑수석, 시민단체와 AI 간담회…양극화·일자리 대책 의견수렴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식발

▲국힘 “李, 임대사업자 ‘악의 축’ 치부…부동산 문제, 편 가르기로 해결 안 돼”  
▲송인석 “대정부질문, 유치한 정쟁 대신 한미 관계·부동산 등 날날이 검증”



# K-반도체기업, 재무여력 개선… 美 중심 글로벌 투자 속도

메모리 업황 호조… 현금창출력 회복  
삼성 테일러공장 임시사용 승인 확보  
SK 6조대 패키징 공장 건설 가시화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재무 여력이 개선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테일러 팹이 가동 준비 단계에 진입하면서 양사의 글로벌 투자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1호 공장의 일부 공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TC I)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구역은 삼성전자 테일러팹 총 부지 500만m2 중 8175m2에 해당하는 크기로 TCO는 화재 안전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필수 행정 절차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테일러 팹 가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아들이고 있다. 장비 반입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국 반도체 장비 및 서비스업체 디바이스는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부터 109억원 규모의반도체 세척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납품은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장비가 테일러 공장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건설 일정을 앞당기려는 노력과 함께 장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며 2nm 공정 수율 개선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말 투자 자회사인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인비식스의 소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로 유명한 네덜란드 ASML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인비

식스는 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성능 검증에 있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165억달러 규모의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해 테일러 공장의 일감을 확보했으며 올해 연말 초도 양산을 계획 중이다.

특히 테슬라 외에도 구글과 AMD를 유력한 고객으로 거론하며 추가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 파운드리에 테슬라 관련 물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38억 7000만달러(한화 약 5조5850억원)를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한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웨스트라파에 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SK하이닉스가 신청한 사무동 건물과 유틸리티 센

터(CUB), 반도체 공장 등 시설의 기초 공사 하기를 신청했다.

SK하이닉스는 환경 인허가를 비롯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장 가동 목표는 오는 2028년 하반기다.

또한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미국에 AI설루션 회사인 ‘AI 컴퍼니’ 설립을 위해 100억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역량을 가진 글로벌 기업을 발굴하고 AI솔루션 사업화 기회를 추진해 ‘풀스택 AI메모리 크리에이터’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현금창출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상황”이라며 “양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서는 것은 단기 호황 대응이라기보다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CJ프레시웨이, 마켓보로 지분 27.5% 인수

인수금액 403억… 최대주주 등극  
건강한 식자재 유통 생태계 구축 목표

식자재 유통 및 급식 1위 기업 CJ프레시웨이가 국내 식자재 오픈마켓 리더 플랫폼인 ‘식봄’을 운영하는 마켓보로의 최대주주가 됐다. 식봄에 입점된 20만 종 이상의 식자재를 CJ프레시웨이의 전국 단위 콜드체인 물류망을 통해 공급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식자재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CJ프레시웨이는 5일 마켓보로에 대한 지분인수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대상은 마켓보로 지분 27.5%이며 인수 금액은 총 403억원이다.

CJ프레시웨이 이견일 대표이사는 이번 인수에 대해 “국내 식자재 유통 산업을 선도하는 CJ프레시웨이가 보유한 강력한 물류망과 오픈마켓에 최적화된 마켓보로의 기술력이 결합돼 온라인 시장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플랫폼 운영사와 판매자, 구매자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CJ프레시웨이 양산 물류센터. .

말했다.

마켓보로는 식자재 유통 온라인 시장을 선도하는 오픈마켓 플랫폼 ‘식봄’과 식자재 수발주 및 유통관리 서비스 ‘마켓봄’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식봄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2만명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 거래액은 지난 2022년 약 200억원 수준에서 2025년 2341억원까지 성장했다.

CJ프레시웨이의 이번 마켓보로 인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전환 중인 식자재 유통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최대 식자재 유통 기업의 노하우와 전국 단위 콜드체인 물류망을 통해 마켓보로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는 그동안 식자재 유통 산업의 미래지향적 사업 모델 구축과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O2O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CJ프레시웨이의 온라인 자사몰 ‘프레시엔’을 론칭했으며 최근 ‘AI 주문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 도입 등 식자재 유통 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63조원 규모 식자재 유통 시장 대부분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마켓보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고, 생산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빠르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되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산업부, 대한상의 보도자료 감사 착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정책실패 훼손”

김정관 장관 “문책·법적 조치 검토”  
상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 최선”

산업통상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배포된 ‘상속세 부담에 자살자 유출 세계 4위’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고액자산가 해외 순유출’ 통계는 전문 통계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며,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자료다. 산업부는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시켰고, 원자료에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정책적 목적이 어떠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적 영향력을 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 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해치는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월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내부 쇄신책을 내놔다.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미국 출장 중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송미령 “과천 경마전 이전, 마사회 의견 반드시 반영”

〈농식품부 장관〉

“의제화 됐으니 적극적으로 소통”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경기 과천 경마장(벡트론파크 서울) 이전 계획과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미리 한국마사회에 알려준 사안”이라며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열고 ‘경마장 이전에 대해 관련 부처 간 결정 과정은

설명해달라’는 기자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소재 경마장을 이전 후 국군방첩사령부와 통합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다음으로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경마장을 이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마사회와 협의하겠다

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마사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비공식적으로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미 알려줬지만 (당시에는) 마사회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협상을 충분히 할 단계는 아니었다. 이제 의제화가 됐으니 지금부터는 마사회랑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조달 방식’이 관건… 국민연금 달러채, 환율 방파제 되나

##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입법시계

내달 9일까지 재원조달 틀 마련  
달러조달 방식 환율 변수로 주목  
국민연금 외화채, 완충장치 부상  
환헤지·조달원 재설계 논의 본격

대(對)미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 궤도에 오른다. 국민연금의 달러채(외화채) 발행 구상까지 맞물려 대규모 해외 집행이 달러 수급과 원·달러 환율에 주는 충격을 ‘조달 방식’으로 완충할 수 있을지가 거시 변수로 부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대미 투자펀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안은 미국 산업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재원 조달 틀(특별기금·펀드 조성)을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물린 ‘통상 패키지’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관전 포인트는 대미 투자 재원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방식에 따라 달러로 전환·조달되느냐다. 투자 집행이 현물환 매수에 쏠릴 경우 단기 수급 불균형이 커

지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간 유출 한도와 장기 집행 구조, 초기 집행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충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달러채 카드’가 완충 장치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수록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복지부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외화채 발행이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달러 조달 다변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 시각에서도 환율·수급의 무게가 확인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대담에서 “당시 1480원 수준의 환율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 급등의 국내 요인으로는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를 지목하며,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점을 거론해 “최소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한은·국민연금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논의 중이며 이를 ‘뉴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했다.

핵심은 ‘환헤지와 달러 조달원의 재설계’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목표 비율이 0%인 점을 언급하며 헤지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스왑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헤지 수단과 달러 자금 조달원 확보를 주문했고,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자산부채관리(ALM)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회 특위가 특별펀드의 재원·집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환헤지 규정 정비가 어느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원화 변동성과 통화정책 환경을 함께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관련 방향이 “이르면 3~6개월 이내 정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달러 수급·환율 → 통화정책 선택지’ 연결고리가 정책 의제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대미투자특별법’ 내달 9일 전 처리 속도

관세협상 후속조치 입법 논의 본격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심사  
특위 16명 구성… 여야 합의처리 원칙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국회가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따라 이번주 내 특위 위원을 확정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였던 만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 구성안 통과 이후 모두발언을 통해 “한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응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며 “한 달로 활동기한을 정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 김정관 “관세 인상없이 해결이 목표”

산업부 장관, 세종청사서 기자회견  
대미투자특별법 3월 통과 유예 열쇠  
상호관세 25% 위헌 여부 등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할 수만 있으면 관세 인상 없이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 25%의 위헌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수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관은 다만 “관보 게재 이후 상황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나리오에는 관세 인상 자체를 막는 것이다. 김

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직접 지목했다”면서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 합의 상황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관보 게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의 설명과 노력이 일정 부분 전달된 결과’로 해석했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는 3일에서 길어도 1주만 가능하지만, 이미 2주 이상 지연된 점은 여러 외교·통상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미 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러트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25%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정부가 고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日 자민당 역대최대 ‘압승’… 재정책대 예고에 원·엔 동반 약세 우려

316석 확보, 다카이치 2기 출범  
엔·달러 152→157엔, 엔저 가속  
원·달러 단기 동반 상승 압력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해 수출 경쟁도가 높고,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약속한 만큼,

엔화가 약세 국면에 진입하며 원화도 동반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9일 NHK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의 원 총선에서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이는 창당 이후 역대 최대 의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도 상회한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확보한 36석을 합산하면 총 352석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해소된 만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 이후 중의원을 해산하며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60~70%에 달하는 다카이치의 지지율에도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가 233석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던 만큼, 조기 총선을 통해 자민당 단독으로도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입법 및 정책 과제에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번 총선에서 일본 자민당은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의 일시 감면 등 감세안도 포함됐다. 금융 완화로 주안점을 둔 1기 내각의 ‘사나에노믹스’ 정책의 연장이라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자민당의 압승을 확인한 이후 “(정책 지속을 위해) 2기 내각에서도 현재 각료진을 모두 유임시키겠다”라면서 “소비세 감세와 급부부 세액공제를 논의할 국민회의를 가능한 빨리 소집해 속도를 내겠

다. 여기에 찬성하는 야당을 모두 규합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며 목표를 재확인했다.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과 한국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경쟁도가 높고, 원화도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적극적인 완화책으로 단기 엔·달러 환율이 상승(엔화값 하락)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원화값 하락)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북미 고사양 전력망 투자… 전력기기 3사, ‘풀세트 수주’ 전환

유안타證 “765kV 초고압 송전망 축  
올해부터 북미 수주 사이클 본격화”  
3사 합산 수주잔고 약 27조 달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  
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겹치며 북미 전  
력기기 시장이 막대한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빅 3사는 변압기 단  
품 공급을 넘어 GIS·차단기·STATCO  
M·배전기기 등을 묶은 ‘풀세트 공급’ 전  
략으로 수주 방식 전환에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  
난 2일 보고서를 통해 765kV 초고압 송  
전망 프로젝트를 축으로 북미 고사양 전  
력기기 수주 사이클이 올해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나해에도 국내 전력기기 3사는 실  
적과 수주잔고를 키우며 호황을 확인했  
다. 효성중공업은 매출 5조9685억원(+  
21.9%), 영업이익 7470억원(+106.1%)



효성중공업이 지난해 영국 스코틀랜드에 설치한 초고압변압기.

/효성중공업

을, HD현대일렉트릭은 매출 4조795억  
원(+22.8%), 영업이익 9953억원(+  
48.8%)으로 초유의 실적을 각각 기록했  
다. LS일렉트릭도 매출 4조9622억원(+  
9.0%), 영업이익 4269억원(+9.6%)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3사 합산 수주잔고  
는 약 27조원이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공급 제  
약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 변압  
기는 수작업 비중이 높고 숙련 인력 양  
성에 시간이 걸려 단기간 증설이 어렵  
다. 우드맥кен지는 지난해 기준 미국 전  
력변압기와 배전변압기 공급 부족률을  
각각 30%, 10%로 추산했다. 글로벌 OE

M들의 증설 투자에도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공급 병목은 오는 2030년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  
업체 배제 기조까지 겹쳤다.

국내 전력기기 3사는 생산능력 확대  
와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풀세트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에 1억5700  
만달러를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765  
kV 초고압 송전망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  
운데, 현지 생산 기반을 통해 대용량 설  
비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하  
반기부터 고스펙 GIS의 미국향 공급도  
가능해지고, 데이터센터 연계 STATCO  
M 레퍼런스 확보로 패키지 수주 경쟁력  
도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미국변압기  
공장 증설과 함께 공법 고도화, 숙련 인  
력 양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간 청주 배전캠퍼스

는 자동화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고도화  
를 추진한다. 배전 분야는 신제품 라인  
업·현지 파트너십으로 판매 채널을 다변  
화하고, 회전기 부문은 선박용 축발전  
기·대용량 드라이브(VFD) 패키지·10M  
W급 대형 전동기로 사업을 확장한다.

LS일렉트릭은 성장 축을 북미 배전  
시장으로 옮기고 있다. 초고압 변압기  
시장보다 약 6배 큰 배전 분야에서 주도  
권을 확보해 매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제2사업장 준공으로 초  
고압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HVDC(초  
고압직류송전)·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확대해 시스템 단  
위 수주 역량을 강화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기기 시장의 공급  
자 우위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초고압 변압기는 증설에도 불구하고 중  
장기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edhale@metroseoul.co.kr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병원 기반 세포처리시설 개소

‘오닉스 바이오파운드리’ 운영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 핵심 거점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연구자들의  
오가노이드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바이오의약품 위탁연구·개발·생  
산(CRDMO)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융합연구관에서 자  
사의 병원 기반 세포처리시설인 ‘오닉스  
바이오파운드리(ONYX Biofoundry)  
AMC(Asan Medical Center)’의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오닉스바이오파운드  
리 AMC’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추  
진하는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의 핵



오상훈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왼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융합연구관에서 열린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AMC’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 거점이다. 연구, 공정개발, 제조, 품  
질시험, 임상, 규제 대응에 이르는 세포  
치료제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으로 제공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임상연구를 완벽히 지원하며, 기존  
제조 센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신속한 첨  
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특히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AMC는

임상 현장인 병원 내부에 위치해 서울아  
산병원 세포처리시설(CPF)과 연결된  
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개발한 세포  
기반 치료제를 연구용 또는 임상용 형태  
로 직접 생산하고,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개발 전략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최적 중간연구 프로세스를 실현하  
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는 연  
구에서 임상으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의  
시간과 부담을 크게 줄이는 요소가 될 전  
망이다.

또한 광명 GMP 센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임상 전환 후 대규모 제조까지 연  
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광명 GMP  
센터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2022)과 세포처리시설 허가(2023)를 취  
득한 임상용 GMP 시설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초기 연구 단계의  
소규모 제조부터 임상 단계의 대규모 제  
조까지 동일 플랫폼 내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연구-임상-초기 상용  
화 단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향후 이 시설  
을 기반으로 병원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을 극대화하여, 오가노이드  
및 세포 기반의 정밀의학 분야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상훈 대표는  
“세계적 수준의 임상 역량을 갖춘 서울  
아산병원 내에 치료제 생산시설을 구축  
한 것은 연구와 의료임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신약개발의 소중한 이정표”라  
며 “이러한 최적 시스템에서 창출될 임  
상 성과들은 신약개발과 더불어 국내 첨  
단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  
다.

/이세경 기자 seille@

##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소상공인·노동계 “생존권 위협”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골목상권 초토화·장시간 노동 ‘반발’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소상공인단체와 노  
동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  
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명분이지만, 골목상권 침체와 마트 노동  
자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지며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여야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나서고 있  
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  
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합의  
했다. 그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

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며 급성장한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도입된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다. 이커머스 독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대형마트의 쇠퇴가 가속화되자 기울어  
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계  
는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헌납하는 행  
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  
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  
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  
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  
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

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  
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  
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은 소상공인  
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을 견제하  
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  
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  
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 육성이야말로 온라인 플  
랫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계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  
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노동계 역시 새벽배송 확대가 마트 노  
동자들을 심야·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쿠팡  
의 고속 성장 이면에 수많은 노동자의 죽  
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게 되었  
고, 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다”며 “그  
런데 난데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논의가 나온 것은 쿠팡 규제의 본질을 심  
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심야 노동자의 죽음에 대  
해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통용되고 대책  
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  
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  
로 내모는 것”이라며 “당·정·청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논란을 넘어 이  
미 변해버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상공  
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손  
발을 묶는 것만으로는 이미 쿠팡커머스와

새벽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골목  
상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야간  
영업이나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골  
목상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  
단했다. 이 교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  
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먹거리와 가격 경쟁력 등 분명  
한 강점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  
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상공인들  
이 부족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  
언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쇼트트랙 유망주  
최승완

## 매일 꿈꾸는 작은 도전자들

우리는 압니다.

꿈꾸는 미래는  
매일의 작은 도전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들의 상상 속 질주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생생한 환호를 받게 될 것임을.

오늘의 간절한 바람이  
내일의 눈부신 현실이 되기에

KT는 자라나는 모든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 집권당 vs 현역 경쟁력... ‘행정통합’ 속 충청 민심 어디로

## ☞ 지방선거 돋보기

충청은 우리나라 정치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 초반 치러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김영환), 충남도지사(김태흠), 대전시장(이장우), 세종시장(최민호)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중반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선 충북·충남·대전·세종 28개 지역구 중 6곳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참패를 겪었다.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대거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전직 단체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의 도전도 거센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충청의 민심이 주목 받고 있다.

### ◆충청 최대 현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6·3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지역 정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면, 지방선거에서 초대 대전·충남통합 특별시 초대 시장을 선출할 수도 있어 정치권의 쟁점도 복잡해지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 ④ 韓정치 가능자 ‘충청도’

통합 초대시장 가능성에 썬병 복잡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 여부 관심 野, 현직 프리미엄 업고 연임 도전

되면 인구 357만, 지역내총생산 197조 원 등 국내 3위 규모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돼 정부 지원 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담당 상임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축조심사,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발의된 안이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고 의무 규정이 많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안과 달리 임의 규정이 많으며 현직 단체장과 야당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매끄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 ◆여당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론 ‘술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떠나 지역 정가의 또다른 관심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6·3 지방선거 도전 여부다. 충남 아산읍에서 내리 국회의원 3선을 한 강 실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초대 후보군으로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송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 외에도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일찍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장종태(대전 서구갑) 의원 역시 지역 관료 출신 경험을 살려 행정통합을 완성시키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4선의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고심 끝에 단체장 도전 결심을 밝히며 지역위원장을 사퇴했다. 전직 단체장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대경 전 대전시장은 각각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외에도 문진석(충남 천안시갑)과 박정현 부여군수 등도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충북지사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으로 사고도 당으로 지정된 충북도당을 수습하기 위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송

기섭 진천군수와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 선거는 국회 출신인 홍순식 전 보좌관,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보좌관을 지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 ◆야당은 현직 단체장 연임 도전 유력

국민의힘에선 현직 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줄지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략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쉽사리 선거에 도전하려는 인사가 나오지 않는 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연임 도전이 유력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의제에서 행동을 함께하며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성원종 의원이 발의한 원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영환 지사가 재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 예비후보도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한다. 세종시장 선거도 현직인 최민호 시장이 연임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오늘 발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위한 결단 “35개 법률 위반 행위 직접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과 정부가 전날(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천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

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제명 확정

김종혁 “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사진)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

다. ‘탈당 권유’는 일정 기간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하는 징계 조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서예진 기자

## 정청래 “2차특검 추천, 대통령께 사과”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 이력 논란 이언주 “제2체포동의안 가결”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전 변호사는 202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에서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은 담당한 원내지도부를 향해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에 설치된 인사추천위가 있다. 예를 들면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추천에 있어 (추천위가) 인사검증을 철저히 한다”며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지던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 올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

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사과에도 당내 반발은 여전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께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당이 추천한 후보였다는 사실이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2차종합 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검찰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다”며 “제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제게 특검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혜자카드 단종’ 혜택은 줄이고 자금조달 창구 다변화 ‘투트랙’

## ‘카드사’ 활로 모색

여전채 금리 연 3.48% 상승세  
카드사 8곳, 작년 525종 발급중단  
2022년 101종 대비 5배 넘는 수치  
‘김치본드’ 등 외화표시 채권 발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여전채 금리가 상승하자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과 조달 구조 개선이란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마케팅을 줄이고 혜택 좋은 카드(혜자카드)를 단종하며 내실을 다지는 한편, 외화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창구 다변화에 나섰다.

9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여전채(AA+/3년물) 금리는 연 3.48% 수준이다.

앞서 여전채 금리는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지난 2023년 초 5%대까지 치솟다가 지난해 1분기 2%대로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3%대로 진입, 올해 초 3%대 중반까지 다시 올라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채 금리 상승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결과다. 지난달 15일 한은은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부



주요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대신 내실을 꾀하고 있다. 서울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터 올해 1월 사이 총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점이 여전채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실제 금통위가 열린 지난달 15일 이후 여전채 금리는 16일 3.440%에서 19일 3.485%, 20일 3.538%로 연일 상승폭을 키웠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 시장 금리에 즉각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조달 비용 부담을 느낀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은 올해 본업에 집중하는 내실 경영 기조를 택했다. 공격적인 신사업 확장을 통해 외형 성장에 나서기보다는 비용 절감, 수익 구조 안정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이벤트 혜택을 줄

이는가 하면 가격 대비 성능을 극대화한 ‘혜자카드’를 단종하고 나섰다. 무이자 할부 개월 수를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고, ‘MG+하나카드’ 등 인기 있는 알짜 카드 발급을 중단하면서 비용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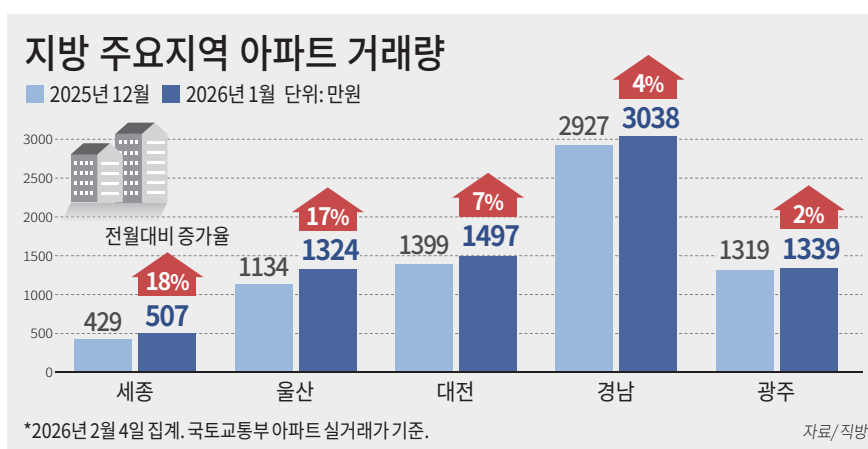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이 지난해 발급을 중단한 카드는 총 525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1종에 달했던 발급 중단 카드 수와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치다.

비용 절감 대신 자금 조달 채널 다각화에 나선 곳도 있다. 현대카드는 최근 15년 만에 2000만 달러, 약 294억원 규모의 김치본드를 발행했다. 김치본드는 국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이다.

자금 조달의 70% 이상을 여전채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조달 창구를 다변화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김치본드 발행으로 자금 조달 채널을 더욱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외에도 해외 달러 화표시채권, 신디케이트론,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외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조달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세종·울산 등 지방 아파트 거래량 확대

1월 세종시 거래량 507건 18% ↑  
울산 17%, 대전 7% 등 증가세

올해 들어 세종시와 울산시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 일 기준 세종시는 1월 거래량이 507건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울산도 1324건으로 전월 대비 17% 늘었다. 대전 1497건(7% ↑), 경남 3038건(4% ↑), 광주 1339건(2% ↑) 등이다.

직방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거래량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며 “아직 1월 거래의 추가 신고가 2월 중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집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에 비해 가격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였다.

세종시의 1월 중위가격은 5억3300만원에서 5억 9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고, 평균가격은 5억4000만원대를 유지했다.

울산 역시 거래는 늘었지만 중위가격은 3억원대 초반, 평균가격은 3억원대 중반을 유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지방 일부 지역의 거래량 반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방 시장의 경우 그간 공급 부담과 지역 경제 여건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돼 왔던 만큼 기저효과이거나 연말로 이연됐던 계약이 1월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작년 12월 4733건에서 1월 3228건으로 32% 감소했다. 경기도 1만 1558건, 인천 2301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씩 줄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중·저신용자에도 후불교통·신용카드 발급

금융위, 채무조정 차주 대상  
‘재기 지원 카드’ 2종 출시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중·저신용자를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를 활용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오는 3월 23일부터 도입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0일 출시되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중·저신용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두 상품은 작년 12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예고된 상품으로, 채무조정 이후 이를 성실히 이행중인 중·저신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채무조정자가 체크카드를 통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한도가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후 성실 상황이 지속될 경



/금융위원회

우 신용평가를 통한 일반 체크카드 결제도 허용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 중에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이전까지 후불 교통카드 이용이 불가능했다. 공공정보 삭제를 위해선 통상 1년 이상의 성실상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신정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도 연체가 없다면 각 카드사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삼성웰텍 등 모바일 환경에서는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 23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연체나 채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소액부터 상환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체가 없고, 가처분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금원 보증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채무조정 중에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이다.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카드(200~300만원 한도)보다 증액됐다.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결제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출시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3만 4000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신한은행, 땡겨요서 피자 1만3000원 할인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  
서울시·피자 브랜드 7개사 협업

신한은행은 오는 15일까지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서울시 및 주요 피자 브랜드 7개사와 협업해 외식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서울시의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땡겨요는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의 단독 운영사로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고객은 피자 브랜드 7개사(▲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 ▲피자알블로 ▲피자에땅 ▲피자헛 ▲7번가피자)의 자체 할인 혜택에 더해, 땡겨요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배달+’ 전용 할인 쿠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13,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땡겨요는 기존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곳과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정 더 간간해 진다

국토부, 체류자격·주소 등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해야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자격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래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에 신고할 내용으로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은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K-방산, 차세대 무기·현지화 모델 총망라… 100조 시장 연다

## 2026 WDS

한화 육·해·공·우주 통합 패키지  
현대로템 전차·차륜형장갑차 전면예  
LIG넥스원 천궁 등 방공술루션 선보  
KAI 유무인 복합체계 등 역량 뽐내

K-방산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를 무대로 현지화 협력 모델과 차세대 무기체계를 앞세워 중동 수출 확대에 나섰다. 연 10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중동 방산 수요를 겨냥해 패키지 제안과 신제품 공개를 통해 존재감을 키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8~12일(현지시간) 리아드에서 열리는 WDS에는 한화,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현대위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 전세계 76개국 77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440개 이상의 해외 사절단이 방문하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다. 국내 업체들은 사우디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WDS 2026 한화 부스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로 공개한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PGW)' 목업. /한화

2030'과 연계한 협력안과 미래 방산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워 수출 확대를 타진하고 있다.

한화는 통합 부스를 통해 그룹내 육·해·공·우주 전 영역을 아우르는 'K-방산 수출 패키지'를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은 드론·유무인기·로켓·박격포 등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는 다목적레이다(MMR)를 처음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전투체계와 기관제어를 적용한 '스마트 배틀십' 개념을 제시한다. 위성·드

론 정보를 AI로 분석하는 차세대 위성 영상분석 솔루션도 함께 전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I가 표적을 정찰·식별해 타격하는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PGW)를 최초 공개한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배치-II(3000톤급) 잠수함을 중심으로 건조부터 정비·운영까지 포함한 맞춤형 '토탈 패키지' 잠수함 솔루션을 강조한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계열과 차륜형장갑차 등을 전면에 내세워 중동 시장 공략

에 나선다. K2 전차를 비롯해 장애물개척 전차·구난전차 등 K2 기반 계열전차 목업과 수출형 30t급 차륜형장갑차, 지휘소용·의무후송차량 목업을 전시한다. 신형 플랫폼으로는 드론 방어체계(C-UAS)를 접목한 다목적 무인차량 'HR-세르파'를 처음 공개하며, 레이더 기반 탐지·대응 체계를 강조한다. 실물 크기 목업과 정찰 드론, 유도미사일 탑재 축소 목업을 함께 전시해 운용 개념도 제시한다. 아울러 수소 연료전지 기반 무인 모빌리티 전동화 플랫폼 '블랙 베일'을 해외에 처음 공개해 저소음 기동과 개방형 적재공간을 활용한 군·민수 활용성을 부각한다.

LIG넥스원은 천궁·L-SAM·LAM-D·신공을 중심으로 미사일·드론·항공 위협에 동시 대응하는 다층방공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대포병탐지레이더-II와 전자전기(SOJ)도 함께 전시해 탐지·요격·전자전 연계 역량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중 분야에서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과 단·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공대함미사일, 다목적순항미사일(L-MCM) 등 항공 무장체계와 중형 무인기를 전시해

정밀타격·정찰 능력을 제시한다.

지상 분야에서는 대전차 유도무기 현공과 드론 위협 대응용 무인지상차량 L-Sword를 소개하고, 고스트로보틱스 VISION60을 전시해 유무인복합 운용 개념을 보여준다. 해양 분야에서는 통합마스트, 함정전투체계(CMS), CIWS-II와 비공·해공 등 유도무기를 전시하며 AU V와 무인수상정 해검-III를 통해 수상·수중 무인 정찰·대응 역량을 부각한다.

KAI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집중한다. FA-50 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LAH) 등 주력 기종, 초소형 SAR 위성도 함께 선보이며 유무인 복합체계와 항공·우주 역량을 중동 시장에 알릴 계획이다.

차재병 KAI 대표이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투기 도입뿐만 아니라 위성, 무인기 등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주력 사업 수출을 본격화 하는 한편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 KAI, KF-21 등 주력기종 양산·납품 본격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생산-수출-지원' 전주기 사업 확장  
리더십 공백 변수… "인선 서둘러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투기와 헬기 등 주력 기종을 중심으로 생산·수출·후속 지원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주요 플랫폼들이 생산과 해외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항공·방산 전반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한국형 초음속전투기 '보라매(KF-21)'와 초소형무장헬기(LAH)를 중심으로 양산과 납품 일정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KF-21은 초도 양산 계약에 따라 현재 최종 조립이 진행 중이며 공군 인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LAH 역시 2차 양산 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납품 일정이 계획돼 있어, 향후 국내 사업에서 생산 물량이 단계적으로 반영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외 시장에서는 FA-50과 T-50 등을 중심으로 완제기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형 FA-50GF 12대 인도가 이미 완료됐고, 말레이시아형 FA-50M 계약 물량은 올해 말 초도 기체 인도를 시작으로 이후 순차적으로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등 기존 수출국을 기반으로 후속 사업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KAI는 필리핀 공군의 FA-50PH를 대상으로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하며 항공기 수출 이후 운용 단계까지 책임지는 사업 모델을 강화했다. 항공기 후속 지원 시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완제기 수출과 결합된 사업 구조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지역에서의 운용 실적도 축적되고 있다. KT-1과 T-50은 이라크와 튀르키예, 세네갈 등 MENA 지역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형 기동헬기 KUH는 이라크에 국산 헬기 최초로 해외 수출됐다.

미래 사업을 둘러싼 협력도 병행되고 있다. KAI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우주항공 미래 사업 개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양사는 항공엔진 국산화 개발과 무인기 공동 개발·마케팅, 글로벌 상업 우주 시장 진출, 방산·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및 지역 공급망 육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지적한다. 조속한 최고경영자 인선이 이뤄져야 중장기 전략 수립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장 인선이 마무리될 경우 의사결정 속도와 사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전략방향성도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LG전자, '플래그십 D5' 월 매출 120억 육박

베스트샵 단일매장 중 최고 기록

LG전자 플래그십 D5가 오픈 5개월 만에 베스트샵 단일매장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LG전자 플래그십 D5가 지난 1월 매출 119억원을 달성,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베스트샵 강남본점으로 문을 연 2012년 11월부터 플래그십 D5로 탈바꿈한 현재까지 해당 매장 사상 최대 매출일뿐 아니라, 전국 총 362개(2026년 2월 기준) 베스트샵 단일매장 중에서도 월 매출 최고 기록이다.

특히 다가오는 봄 웨딩 시즌을 앞두고 혼수 가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웨딩 고객이 급증, 1월 첫 주말 양일간 1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상담 예약 후 방문해 다 른 매장의 매너저들까지 동원됐다. 실제 지난달 D5 전체 매출 중 혼수가전 판매액 비중은 60%에 달했다.

이 같은 열기에 호응해 LG전자는 올



LG전자 플래그십 D5 사진. /LG전자

1~3월 플래그십 D5 가전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16만4000원 상당의 디퓨저 등 D5만의 특별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건물 5층의 LG전자 헤리티지 전시존, 포토부스, 스태프 체험존에서도 에코백, 키링, 엽서 등 다양한 굿즈를 방문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5일부터 6월말까지 플래그십 D54층에서 예비·신혼 부부 대상 웨딩 커뮤니티를 운영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 SK네트웍스, 연 매출 6.7조… AI 중심 체질전환 성과

자회사 흑자전환 등 성장 기반 마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됐던 지난해 SK네트웍스가 AI 중심 사업주회사로써 입지를 굳건히 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SK네트웍스는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2025년 4분기 매출 1조 6195억원, 영업이익 44억원, 당기순이익 101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자회사 SK인텔릭스의 신제품 출시 비용 영향 및 2분기 이어졌던 정보통신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 하락했으나, 투자주식 평가이익 및 미자

비용 감소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의 연간 누적 실적은 매출 6조 7451억원, 영업이익 863억원, 당기순이익 5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최적화 및 효율적인 자본 운영 성과가 나타난 한 해였다. AI기업으로 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SK네트웍스는 2024년 SK렌터카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전기차 충전기업 SK일렉트릭 최대주주의 자리를 앵커에 쿼터파트너스(AEP)에 양도했다.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 글로벌아이드의 경우 수익성 높은 화학원료 중심으로 거

래 품목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SK네트웍스는 불안정한 산업계 환경 속에서 차입금을 축소하는 등 회사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AI 기반 혁신 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는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 10월말 그랜드 런칭한 SK인텔릭스의 웰니스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가 대표적인 예다. 신제품 출시 및 초기 마케팅 비용 집행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AI 및 로봇 기술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중장기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삼성SDI-동서발전, 글로벌 에너지사업 맞손

ESS·신재생 분야 협력 MOU

삼성SDI와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개발·투자를 공동 추진하며 협력에 나선다.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SPE)에서 한국동서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ESS를 포함한 국내외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개발

과 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량 안정화 사업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삼성SDI 울산사업장 내 에너지 관리·운영(Management Service Provider, MSP)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공동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공급망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며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원관희 기자



# 소상공인 경영 숨통 틔운다 ‘25만원 바우처’ 접수 본격화

소진공, 초기 이틀 훌쩍 2부제 신청  
작년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대상  
설 명절 앞두고 230만명 혜택 기대  
공과금·보험료·연료비 등 사용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

설 명절을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바우처 25만원 지급을 위한 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체가 대상으로, 예산 총 5790억원을 통해 약 23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곳)를 선택하면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진공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시 기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정보 재입력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소진공은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날(9일)과 둘째 날(10일)은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맨 오른쪽)이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접수 상황을 소진공 대전 본부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소진공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를 운영한다. 첫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3·5·7·9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둘째날은 짝수인 2·4·6·8·0 사업자가 대상이다. 11일부터는 숫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불가능하다.

받은 디지털 바우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보험료)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로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약 사흘째부터 쓸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께선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지원 사업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진공의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한화에어로, 방산성장 타고 ‘최대 실적’

지상방산 매출 8.1조·영업익 2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상방산과 항공우주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방산·조선해양 사업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주 성과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26조6078억원, 영업이익 3조345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7%, 영업이익은 75% 증가했다. 지상방산·항공우주 부문의 꾸준한 성장, 한화오션의 연간 전체 연결 편입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상방산 부문은 지난해 매출 8조 1331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매출 규모가 약 두 배로 확대됐다. 영업이익은 2조129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노르웨이 K9 자주포, 에스토

니아 다연장 첨단 유도미사일 천무 수출을 달성했으며, 국내에서는 7054억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과 2254억원 규모의 천검(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유도탄)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상방산 부문 수주잔고는 약 37조2000억원에 달한다.

항공우주 부문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매출은 2조5131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군수 물량 확대와 생산성 개선 효과가 맞물리며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자회사 한화오션은 지난해 12개월 전체 실적이 처음으로 연결 결산에 반영되며 통합 방산 시너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연간 매출 12조 6884억원, 영업이익 1조1091억원을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wkh@

## HD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 3.9조 ‘역대 최고’

조선 계열사 호조가 실적 견인

HD현대의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9조 9332억원, 영업이익 3조9045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2%, 영업이익은 172.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1516억원, 1조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108% 늘었다.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물량 증가와 생산성 개선이 이어지며 조선 계열사 실적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HD현대중공업은 매출 17조5806억원, 영업이익 2조375억원을 기록했다. HD현대삼호는 매출 8조714억원, 영업이익 1조3628억원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3년 연속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

합병 전 HD현대미포는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3조7186억원, 영업이익 3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박 엔진 계열사 HD현대마린엔진은 엔진 물량 증가와 부품 사업 매출 확대에 힘입어 매출 4024억원, 영업이익 75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계열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4927억원, 영업이익 412억원을 기록했으며 회사 측은 국내외 판매량 증가와 판가 회복을 배경으로 꼽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조선 부문 매출이 25조3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조3149억원으로 119.9% 늘었다. 엔진기계 부문은 매출 4조2859억원, 영업이익 7746억원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매출 1조2436억원, 영업이익 1379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 대기업 투자·확장 자제 동반위, ‘대·중소 협약’ 3년 연장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추가 진입이나 설비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3년간 상생을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9개사,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선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한국아네오스스티플루션, 한화솔루션, BGF에코사이클, DL케미칼, HD현대케미칼, LG화학이 두루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체결한 상생협약의 연장으로, 협약기간은 3년이다.

추가 협약을 통해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인 고부가·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고 물리적 재활용 시장진입 및 설비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현대리바트, 이라크 가설공사 수주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1178억 규모

현대건설과 계약 맺고 공사 착수  
내년 6월까지 근로자 숙소 등 건설

현대리바트가 1178억원 규모의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가설공사를 맡는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현대건설과 총 1178억원(약801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가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현대리바트의 연간 매출(2024년 기준 1조 8707억원)의 6.3%, 연간 B2B 사업 매출(2024년 기준 6593억원)의 약 18%에 달하는 규모다.

가설공사는 정유, 가스, 석유화학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에 필요한 숙소나 사무실, 임시도로 등의 기반 설비를 갖추는 사전 공사를 말한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통상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대규모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가설공사는 현지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번 가설공사의 경우 기존 중동 건설 프로젝트에서 보여줬던 우수한 공사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현대리바트만의 고



현대리바트가 진행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잔(MIP) 가설공사 현장 전경.

품질 시공 역량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복수의 중동 현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리바트는 이번 가설공사 계약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이라크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 근로자 숙소와 사무실, 부대시설 등 가설공사 현장의 기반 시설과 전기·소방·통신 등의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라크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프로젝트는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500km 떨어진 코르 알 수바이르 항구 인근에 추진 중인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김승호 기자

## 청호나이스, 프리미엄 수면 솔루션 선택

하이엔드 매트리스 ‘네스티지’ 공개  
라이프스타일 맞춤 매트리스 3종

청호나이스가 차별화한 수면 완성도를 구현한 하이엔드 매트리스 ‘네스티지’(사진)를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매트리스 3종을 출시했다.

9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수면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트리스 선택 기준 역시 개인의 체형과 수면습관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최상위 하이엔드 라인 네스티지를 중심으로 ▲로얄스위트프라이م ▲멜로우드림을 함께 선보였다.

‘네스티지’는 프리미엄 매트리스에 요구되는 핵심 설계를 적용해 기본기부터 차별화한 제품이다. 피아노 줄에 사용되는 고탄성·고강도 강선을 적용한 포켓스프링을 메인 스프링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 ‘마이크로 포켓스프링’을 한 층 더한 2중 스프링 구조를 적용해 탁월한 복원력과 안정적인 지지력을 구현했다.

하단 메인 스프링은 3가지 강선을 9



개의 영역으로 배치해 신체를 세밀하게 지지하며, 반복적인 사용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수면감을 제공한다.

‘매트리스 로얄스위트프라이م’은 3가지 강선을 9개의 영역으로 배치한 티타늄 포켓스프링으로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친환경 MDI 폼을 적용해 소재 안정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매트리스 멜로우드림’은 자연 친화적 감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친환경 뱀부 원단을 적용해 흡습성과 통기성이 뛰어나며 항균·소취 기능을 갖췄다.

/김승호 기자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 KT, 사외이사 인선 착수… 압박 속 지배구조 신뢰 시험대

임기 만료·중도 사퇴로 4명 교체  
국민연금, 이사회 주주권 침해 지적  
윤종수·최양희 이사 연임 불투명  
KT노조, 선임과정 참여 요구 압박

KT 이사회가 사외이사 인선이라는 중대 분기점에 섰다. KT는 CEO 선임·해임을 비롯해 조직 개편 등 주요 권한이 이사회에 집중된 구조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경우 CEO 인선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KT 이사회는 임기 만료와 중도 사퇴로 최대 4명의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압박과 이사회 내부의 도덕성 논란, 노조의 전면 쇄신 요구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번 인선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를 넘어 KT 지배구조의 신뢰를 가를 시험대로 떠올랐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9일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가 참여하는 사전 설명회를 열고, 10일 정식 이사



KT 본사 전경.

회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KT 이사회는 과우영 이사(전 현대자동차 차량 IT개발센터장), 김성철 이사(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용현 의장(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영균 이사(전 세계화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 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상근고문), 이승훈 이사(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최양희 이사

(한림대 총장) 등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김영섭 대표이사과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이 맡고 있다.

이번 인선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안영균·윤종수·최양희 이사와 지난해 자격 논란으로 사퇴한 조승아 전 이사(서울대 경영대 교수)의 빈자리를 포함해 총 4명의 후임을 선임해야 한다. 조 전 이사는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하며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겸직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대 변수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이사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주주권 침해로 보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특히 해당 규정 개정에 찬성했던 이사들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윤종수·최양희 이사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KT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해 임원 인사 관련 권한을 ‘심의 및 의결’에서 ‘사전 협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내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도 이번 인선 과정에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승훈 사외이사는 독일 위성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 알선 및 지인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거취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자격 상실 상태였던 조승아 전 이사가 지난해 주요 의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현 이사진의 임기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외부 압박도 거세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KT 이사회는 경영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의 본거지로 전락했다”며 이사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다수 노조인 KT노조 역시 이사회 운영 방식의 전면 개선과 현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KT노조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노조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KT노조 측은 “이사회도 평가받는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운영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공백 없는 대표이사 선임·교체 절차를 만들고 임원인사와 조직 개편에서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노조는 이사회 주관의 조직 개편 시, 노란봉투법에 따라 이사회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불응 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네이버, 전체 매출 30% ‘커머스’… AI 결합 외형확장 박차

검색 광고 중심 수익구조서 벗어나  
검색 트래픽·쇼핑 데이터로 개인화  
‘AI 쇼핑 에이전트’ 공개 예정

네이버 실적을 이끌어온 커머스 사업이 전체 매출의 30%를 처음 넘어섰다. 검색 광고 중심이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커머스를 축으로 한 사업 체질 개선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쇼핑 에이전트’ 공개가 임박하면서 외형 확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분기 기준 커머스 부문 매출 비중이 30%를 처음 돌파했다. 과거 네이버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던 검색 광고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쇼핑·브랜드스토어·도착 보장·멤버십 등 커머스 관련 매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는 단순 거래액 증가를 넘어 수익 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생태계를 기반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끌어들이는 구조를 구축했다. 방대한 검색 트래픽과 쇼핑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화 추천을 고도화했고, 판매자에게는 광고·물류·데이터 분석 도구를 패키지로 제공하며 플랫폼 의존도를 높였다.

특히 도착보장, 빠른정산, 브랜드스토어 확대 등으로 신뢰도를 강화하면서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대형 브랜드까지 입점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에는 정보기와 신선식품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반복 구매가 발생하는 카테고리를 공략해 플랫폼 락인 효과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물류 파트너십과 멤버십 혜택을 결합해 재구매율을 높이고, 커머스와 핀테크 간 시너지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결제 데이터는 다시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시장에서는 이를 ‘검색 편중 구조 탈피’로 평가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검색 광고 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커머스가 실적 방어를 넘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매출 확대에 이어지는 구조가 보다 견고해졌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AI 접목이다. 네이버는 생성형 AI 기술을 커머스에 본격 적용해 ‘AI 쇼핑 에이전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키워드 검색 기반 추천을 넘어, 이용자의 취향과 구매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형으로 상품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설 선물로 5만 원대 건강식품 추천해줘’와 같은 요청에 조건에 맞는 상품을 비교·요약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AI 에이전트는 탐색 시간 단축과 구매 전환율 상승을 동시에 노린다. 특히 방대한 상품군 속에서 선택 피로도가 높아진 소비자에게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해 구매 결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AI 추천 고도화는 광고·커머스·결제를 아우르는 네이버 생태계 전반의 매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며 “커머스 매출 비중 확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AI 기술을 검색, 커머스, 콘텐츠 전반에 통합 적용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커머스를 실적의 축으로 세운 상황에서 AI 결합은 단순 기능 개선이 아니라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분기점에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 측은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판매자와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하는 커머스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 컬리N마트 당일배송 서비스 확대

네이버가 컬리와 손잡고 ‘컬리N마트’ 당일배송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며 장보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9일 네이버는 최근 컬리와 협업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 ‘컬리N마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당일배송 및 신선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익일 중심 배송 구조에서 당일 수령이 가능한 상품군을 늘리며 체류 시간과 구매 전환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장보기는 반복 구매율이 높은 카테고리로, 플랫폼 락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검색·커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컬리는 자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신선도와 배송 속도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 카카오맵 수도권 농수산물시장 실내지도 서비스 추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장보기 동선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위치 기반 라이프 플랫폼 ‘카카오맵’에 서울 및 경기 지역 주요 농수산물시장 실내지도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복잡한 내부 공간에서 원하는 점포와 편의시설을 빠르게 찾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데이트다.

이번에 실내지도가 적용된 곳은 서울 지역의 경우 ▲가락물 가락시장 소매권역 ▲경동시장 ▲악령시장 ▲동서청과 물시장이며 경기지역에서는 등 수도권 대표 대형 시장 10여 곳이다.

이용자는 카카오맵 모바일 앱에서 해당 시장을 검색하면 층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 통신3사, 설 연휴 트래픽 폭증 대책 마련

SKT, 대규모 인력 투입해 서비스 안정  
KT, 전국 1200여개소 사전 점검 실시  
LG U+, 급증 대비 비상운영체제 돌입

통신 3사가 다가오는 설 연휴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간을 맞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설 연휴인 18일까지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설 명절과 동계올림픽 기간이 겹치는 상황에 대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 서비스 안정화에 나선

다.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자회사와 관계사를 포함해 일 평균 1400명, 연인원 86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한다. 전국 기차역, 터미널, 공항 등 인파가 몰리는 1200여 개소의 기지국 용량 점검을 마쳤으며,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 대비 최대 17%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설 당일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통신 환경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상 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에이닷, 티맵 등 주요 서비스 상황실도 별도로 운영한다. 동계올림픽 관련 콘텐츠 급증과



사진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서울역 인근 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해의 로밍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유무선 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합보안센터를 통해 해킹 시도나 스미싱 차단 등 보안 침해 사고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KT는 13일부터 22일까지를 네트워크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한

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명절 기간 특정 지역의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할 경우 다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대응 준비를 마쳤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월 100GB 데이터와 OTT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만큼 이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LG유플러스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신 통화량과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는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KTX 역사 등 주요 거점 지역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품질 점검과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김서현 기자



# 이찬진 “오지급 코인, 반환대상”… 정치테마주 등 조사 강화

〈금감원장〉

## 금감원 감독기조 전면 재정비

검사·제재 혁신 등 15대 핵심과제  
소비자보호, 최우선 가치로 확립  
가상자산 인허가 리스크까지 경고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금융(IB) 부문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속 금융시장 안정성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목표(쇄신·신뢰·안정·상생·미래)를 바탕으로 검사·제재 혁신, 불공정거래 엄단, 민생금융범죄 척결, 디지털 감독 강화 등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빗썸 사고, 특사경 인지수사권, IMA·발행어음 인가 등 시장 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업무계획의 ‘집행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유령코인이 거래됐다”… 빗썸 사태에 가상자산 감독 전면 수정

이 원장은 빗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순 전산 실수가 아니라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취약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 입장에서)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이 부분이 규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당초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와 시스템 검증체계가 입법·감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반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며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지급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고 당시

보다 상승한 만큼 원물 반환 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며 인력 구조의 한계도 털어놨다.

◆ 특사경 인지수사권 ‘통제장치’ 윤곽… “핵심은 48시간”

업무계획의 또 다른 축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이다. 금감원은 기업금융(IB), 정치테마주, 신규사업 가장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신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제도인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통제장치도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 도입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범위 확대는 불법사금융까지만 우선 적용된다. 보험사가 가상자산 등 다른 민생범죄나 회계감리·금융회사 검사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유보됐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외에는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를 불편해하는 기관이 있다”며 “서로 한 술에 배부르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인지수사 통제장치로는 수사 착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수사 개시 이후에는 검찰 지휘와 영장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없는 일”이라며 “핵심은 48시간 내 결론을 내지는 것, 수사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사 감리주기 단축도 본격 추진한다. 현행 감리주기가 약 20년에 달해 회계 부정을 억제하는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20사)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감리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까지 주기를 더 줄이는 로드맵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한다.

금투업계가 주목하는 IMA·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금융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제재와 인허가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모험자본 관점에서 인허가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사명으로 삼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감독을 하겠다”며 “민생금융범죄와 불공정행위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미래에셋證, 작년 세전이익 2조… 70% 꺾충

순이익 1조5936억·ROE 12.4%  
뉴욕법인 2142억 ‘사상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연결기준 세전이익이 2조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1조5936억원, 영업이익은 1조9150억원으로 각각 72%, 61% 늘었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4%로 3분기 연속 10%대를 유지했다. 총 고객자산(AUM)은 602조원(국내 518조원, 해외 84조원)으로 1년 만에 약 120조원 증가했다.

해외법인은 글로벌 비즈니스 개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지난해 대비 약 200% 증가한 4981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4%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4년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 제시했던 ‘2030년까지 해외법인 세전이익 5000억원’ 목표에 1여년 만에 근접한 것이다.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모두 사상 최



서울 을지로의 미래에셋센터원 /미래에셋증권

대 성과를 냈으며, 특히 뉴욕법인은 사상 최대 실적인 2142억원을 기록했다.

PI(자기자본투자) 부문은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약 645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이는 해외 혁신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전문기업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이스X, x.AI 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부문도 모두 사상 최

대 실적을 달성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대비 43% 증가한 1조 110억원,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은 21% 증가한 3421억원, 트레이딩 및 기타 금융손익은 14% 증가한 1조2657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자산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5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한 해 동안 DC 시장 유입액의 19.1%에 해당하는 4조4159억원을 유치하며 전 금융업권 DC부문 순위가 2024년 4위에서 2025년 1위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미래에셋3.0’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금융의 문을 열고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토큰증권 제도 개편에 대응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글로벌 자산관리 원(One) 플랫폼 구축과 자산토큰화·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상품별로 수시형은 세전 연 2.50% 금리가 적용된다. 약정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세전 연 2.30%에서 3.30%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2030 특판 상품 금리는 세전 연 4.0%이며, 대상 고객은 만 15~39 청년이다. 200억원 한도이며, 한도 소진 시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 신한투자증권, 첫 발행어음 출시

2030 특판상품, 세전 연 4.0% 금리

신한투자증권이 첫 발행어음 상품인 ‘신한Premier 발행어음’을 9일 출시했다. ‘신한Premier 발행어음’은 신한투자증권이 직접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으로,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을 내세워 수시형, 약정형, 특판형 상품을 선보였다. 상품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개인고객 대상이다.

## 한양증권, 기관전용 사모펀드 GP 진출

GP 기반 스케일업·수익 모델 확장

한양증권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PEF GP) 등록을 마치며 프라이빗에쿼티(PE)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한양증권은 PE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가치제고·지배구조 개선 등 실질적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기업 지분증권·메자닌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한양증

권은 사모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핵심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한양증권의 GP 운용 모델은 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유망 기업 발굴,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자산 운용’, 투자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와 관리보수를 수취하는 ‘수익 배분’ 단계로 구성된다. 한양증권은 이번 등록을 통해 운용 영역에 기관전용 PEF를 추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스케일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 ‘반도체 TOP10 ETF’ 순자산 5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대 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반도체 TOP10 ETF’의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반도체 TOP10 ETF’의 순자산은 지난 6일 기준 5조 3257억원으로, 국내 주식 테마형 ETF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8,695억원으로 테마 ETF 중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수익률은 39.58%로 코스피 지수 상승률(20.76%)을 크게 상회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최신

GPU ‘루빈’이 이전 세대 대비 약 50% 증가한 메모리 용량을 요구하며 HBM 4 수요를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확대가 제한적인 가운데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TIGER 반도체 TOP10 ETF는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3.9%, 30.2% 비중으로 편입하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국내 반도체 ETF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본격화 HVDC 연계로 2029년 완공 목표

기후부, 계통접속 개선 조기 완공  
접속선로 15km→2km로 대폭 단축  
최대 3000억 절감 사업성·실행력 ↑  
전북·새만금청·한수원·한전 MOU

그간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돼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기가와트)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접속선로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손질하면서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 온 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 사업만 해도 약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조 원에 달한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계통접속 문제였다. 당초 발전사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9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적기 연계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을 마치고 참여 기관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부

내륙까지 약 15km에 이르는 접속선로를 직접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최근 접속방식을 변경해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접속선로 길이를 약 2km 수준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2~3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구축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2031년까지 공용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수상태양광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 구축과 계통연계가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물론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한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울산형 '의료·산업·공학 융합' 모델 시동

근로복지공단-UNIST 공동추진  
산재 예방·재활 모델 고도화 협력  
의료공학 융합 인재유입 기반 마련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의료·산업·공학을 결합한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UNIST와 의료·산업·공학 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근로복지공단병원(2026년 하반기 준공·개원 예정)을 거점

으로 의료와 산업·공학 역량을 결합한 '울산형 공공의료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병원 기반 구축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 모델 고도화 ▲의료공학 융합 인재 유입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울산 공단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스마트병원'으로 육성하

는 한편, 우수 의료진 유입 환경을 조성해 울산시 최초 공공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UNIST의 의료·산업·공학역량이 공단병원과 만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합"이라며 "이번 협약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 혁신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공단병원을 지역혁신 최고의 파트너인 UNIST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통합수능 마지막 2027학년도 N수생 16만명대 전망

정시 불합격 6.9%↑... 재도전 늘 듯  
의대 지역의사제, 정원 확대 변수

통합수능 체제 마지막 해인 2027년도, 재도전에 나서는 N수생 규모는 16만명 초반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학년도 정시 탈락 규모가 6.9% 급증하고 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모집정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는 수능 개편 직전 해에 N수생이 줄어들던 과거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9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

년도 전국 190개 대학 정시에서 선발인원은 8만6004명, 지원건 수는 51만48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합격 규모는 42만8869건으로 전년도 40만1210건보다 2만7659건 늘어 6.9% 증가했다. 선발인원은 줄었지만, 지원은 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결과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N수생은 2026학년도 15만9922명보다 증가한 16만명 초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학년도 이후 22년간 N수생이 16만명을 넘는 해는 2005학년도 16만1524명

과 2025학년도 16만1784명 두 차례뿐이었다. 여기에 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모집정원이 확대되면서 의대 진입을 노리는 N수와 반수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라는 점에서 내신 고득점 수험생의 수시 재도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적인 탈락 증가 속에 권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특히 지방권의 탈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현진 기자 lhj@

## aT, 설맞이 로컬푸드 직매장 최대 30% 할인

20일까지 전국 30개 직매장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을 맞아 전국 '우수인증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다양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에 선정된 전국 50개 직매장 중 30개 직매장이 참여한다. 지역농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전통놀이 등의 즐길 거리와 고객응모이벤트도 제공한다. 선물세트는 배, 한라봉, 사과, 골드키위 등의 지역농산물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순천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선물세트 기획전과 함께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해남 군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지역 향토음식인 닭장 떡국 나눔행사를 실시한다. 또 전북 완주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경기 안산 반월농협로컬푸드직매장, 평택로컬푸드직매장 오성점과 배다리점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이번 설맞이 행사에서 각 지역은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소비자는 맞춤형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aT는 기대하고 있다.

기온도 aT 유통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맞이 행사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풍성한 명절을 더해 주는 상생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맞이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는 종합정보누리집 '바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산업 스마트공장’ 10곳 내외 선발·양성

농어촌공사, 4월 9일까지 참여 접수

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9일부터 4월9일까지 두 달간이며, 대상은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이 지원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조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다. 공사는 1차 모집을 통해 약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공장 설루션 도입을 비롯해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



전남 나주 소재 농어촌공사 본사.

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축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총 2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제조회장 개선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게 특징이다. 지정 기업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운영 개시

해수부, 송도 아암물류2단지 3층 규모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장식 행사는 이달 10일 예정돼 있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는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 2단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9085㎡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382억 원(국비 10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물류센터는 스마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한 화물의 입·출고 기능과 보관 자동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화물의 실시간 재고관리와 고객 수요 사전 예측 등이 가능하다. 이에 기존 물류센터보다 작업시간과 화물 처리 오류율이 10~20% 감소하고, 생산성과 공간 활용도는 최대 30%까지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용이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와 같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해 공급하면, 높은 초기비용과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중소물류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gift

# 설날 마중

\*\*\*

선물 사전예약  
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산지직송으로 **능수한우암소세트** 제품과  
**프리미엄 솔트에이징** 육류, **프리미엄 과일** 까지  
명절전물세트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2.7조 투입 ‘민생 더보탬’… 자금·물가·피해구제 원스톱

안심통장 5000억 확대, 은행도 늘려  
희망동행자금 상환 늘려 부담 완화  
골목상권 4곳 추가… 시장안전 강화  
착한가격업소 2500곳으로 확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부에만 머무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위기에 먼저 노출되는 4대 계층을 중심으로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자금지원과 물가 안정, 권익 보호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9일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계획을 발표하고, 8대 핵심과제·25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 ◆ 소상공인 체감형 지원 확대

서울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



서울시청 전경.

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 등 6개소로 늘렸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실제로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드는 효과다.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교육과 전환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기반을 갖춘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3000명을 선제 발굴해 AI 경영진단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폐업 시에는 행정 절차와 전직 교육을 포함해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 ◆ 전통시장·골목상권 역량 강화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한다.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해 총 10개 상권을 지원한다. 올해는 중구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동작구 노량진만나로, 광진구 건대입구 청춘대로, 강서구 마곡 미술길 이 새로 포함됐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중구 신중암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와 공용공간을 조성한다. 전통시장 안전망도 강화해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한다.

## ◆ 취약노동자 안전망 확대

‘착한가격업소’를 2500개소로 늘리고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품목을 확대해 출하장려금으로 공급을 안정화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청년 금융교육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 3월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신설해 상가임대차·선결제 피해 등 생활밀착 이슈에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한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해 도입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확대해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제공한다.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은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제조업·야간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은 145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는 예방 중심 안전망을 구축한다. 노동관계법 교육과 컨설팅 대상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 200개소를 지원한다.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인천, 24시간 상담콜·마음지구대 가동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  
3646억 투입해 46개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에 따르면 인천의 1인가구는 41만1천여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6.7%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주거·경제 불안 등 1인가구 관련 정책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 계획으로, 총 3646억 원을 투입해 6개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46개



인천시청전경.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됐으며,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중점으로 했다.

특히 2025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거 및 경제 분야 지원 비중을 확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주거안정 지원(3,040억 원)으로, 주거급여 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

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5개 사업이 추진된다.

경제생활 지원 분야(434억 원)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노인 1인가구 일자리 연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책추진 기반 구축 2억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9억 원 ▲건강증진 및 돌봄지원 104억 원 ▲사회관계망 강화 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1인가구 행복동행사업, 1인가구 포털 개편,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 운영 등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행복동행사업은 2026년 강화군·동구·연수구·부평구·서구 등 5개 군·구로 확대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 부산, 설 연휴 민생경제·안전·의료 ‘총력’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와 안전, 보건의료 등 7개 분야를 포함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먼저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동백전 소비 활성화를 위해 50만원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500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원을 지급하는 ‘동백전 소비 붐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와 최대 2만원 환급 행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2400억원 조기 공급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와 사회공헌기관이 총 32억원 상당의 선금과 성품을 지원한다. 연휴 전후 독거노인 안전 확인, 노숙



부산시청 전경.

인 무료 특식 제공, 야간 응급 잠자리 및 구호방 운영, 성묘·봉안시설 운영 시간 2시간 연장 등도 시행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설 연휴 기간 3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시와 보건소, 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해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북, 광역 단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유치

연 11.8억 투입해 내달 본격 운영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공모사업에서 광역 단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아우르는 가상융합기술과 인공지능, 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광역 단위 가상융합산업 지원 거점기관이다.

연간 국비를 포함해 11억8천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센터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인프라 운영·지원, 가상융합 서비스·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마케팅 및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지역 가상융합산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구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와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5G MEC 실증 인프라, 문경 버추얼스튜디오 등 기존에 구축된 지역 가상융합산업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증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2025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AI 가상융합산업 추진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CG, 모션캡처, AI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디지털 휴먼 솔루션 기술을 도입해 가상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품질을 끌어올린다.

해당 기술은 향후 구축될 AI 영상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실무 중심의 창작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도화되며,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가상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포항, BTS 연계 관광콘텐츠 띄운다

6월 부산 콘서트 방한 해외팬 타깃

포항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BTS 부산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방한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케팅은 세계적인 K-POP 아티스트 BTS 공연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해외 팬층을 포항으로 유입시켜,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글로벌 수요에 주목해 2026년 3월부터 6월 21일까지 글로벌 숙박·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에 나선다. 플랫폼 내 배너 광고를 통해 포항

의 주요 관광지와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콘서트 이후 떠나는 포항 여행 등 공연과 연계한 메시지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여행 동선을 포항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BTS 진이 언급한 물회의 도시 이미지를 비롯해 BTS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회전목마 카페 등 팬들에게 친숙한 장소를 중심으로 포항의 매력을 적극 부각한다.

시는 글로벌 팬클럽 아미는 물론 K-POP에 관심 있는 해외 방문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포항을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인식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하나은행,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하나은행은 이호성 은행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장은 임직원들과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은행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 LG생건, ‘협력회사 파트너스 데이’ 개최

LG생활건강은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26년 협력회사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육성 방안과 지원 계획을 협의하는 등 상생을 논의했다. /LG생활건강



### 오비맥주,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오비맥주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급식소에서 배식을 진행하고 식기 정리와 잔반 처리 등 마무리 작업까지 함께했다. /오비맥주



### 셀트리온그룹, 소외계층에 설 선물 전달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4~5일 인천과 충북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 설 선물세트를 포장하고 인천 및 충북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540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셀트리온그룹



### 광동제약, 지역사회 아동권익 보호

광동제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지역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이의 오늘이 내일의 울산입니다’라는 비전 아래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동제약

### 인사

◆외교부 ◇국장 △조정기획관 조기중

# 재계, 설 앞두고 ‘협력사 상생·내수 활성화’ 팔 걷어

현대차그룹 납품대금 2兆 조기지급  
삼성 ‘설 맞이 온라인 장터’ 운영  
LG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활동  
포스코그룹 4216억 규모 대금 지급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재계가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자금 흐름을 풀고 있다. 협력사들의 자금 여력에 숨통을 틔워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을 꾀하기 위해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설 전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협력사 납품대금 2조768억원에 육박한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트모빌 등 주요 그룹사가 참여한다. 지급 대상은 부품·원자재, 소모품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룹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삼성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가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등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삼성은 730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중공업, 삼성E

## 삼성전자-IOC, ‘솔브포투모로우’ 운영

밀라노 올림픽 연계 미래인재 지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파트너인 삼성전자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단패초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IOC와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삼성 하우스에서 글로벌 청소년 CSR 프로그램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 솔브포투모로우’는 전세계 청소년들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역량을 통해 지역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2010년부터 시작했다. 2026년 동계올림픽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홍보대사는 전세계 각 지역의 우승팀 가운데 ▲혁신성 ▲확장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이 탁월한 10개 팀이 선정됐으며, ▲스포츠기술 부문 5팀 ▲건강과 환경 부문 5팀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와 IOC는 지난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홍보대사를 처음 운영했다. 선발된 홍보대사는 향후 2년간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품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삼성 하우스에서 열린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홍보대사 위촉식.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IOC는 이날 행사에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양측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두 대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 디스플레이에 각각 삼성전자 로고와 올림픽 오륜마크를 띄우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삼성전자와 IOC는 ‘삼성 솔브포투모로우’ 홍보대사들의 창의적인 솔루션을 올림픽 팬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밀라노 현지에서 전시관도 운영한다.

전시관은 오는 10일까지(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타트업 육성센터 스마트시티랩에 마련되며 누구나 방문해 홍보대사들의 다양한 솔루션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삼양식품, ‘HTMX’ 캠페인… 젠지세대 공략

불닭 특유의 매운맛으로 개성 표현

글로벌 메가 히트 불닭브랜드(Buldak)가 커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발렌타인데이의 이미지를 과감히 뒤집고, 한층 더 ‘핫한’ 매운맛으로 전 세계 젠지(Gen-Z) 세대를 정조준한다.

삼양식품은 전 세계 젠지 세대를 겨냥한 신규 글로벌 캠페인 ‘Hotter Than My EX(이하 HTMX)’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통상 발렌타인데이는 커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소소한 이벤트로 설렘을 나누는 날로 인식된다. 하지만 커플이 아닌 이들, 혹은 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발렌타인데이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을 위한 날’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하루다. 때로는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불닭브랜드는 이러한 감정의 지점에 주목했다. 여타 브랜드들이 커플 중심 이벤트를 펼치는 것과는 달리, 발렌타인데이를 연애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는 날로 차별화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커플 중심으로 인식돼 온 발렌타인데이의 기존 공식을 깨고, 자존감과 자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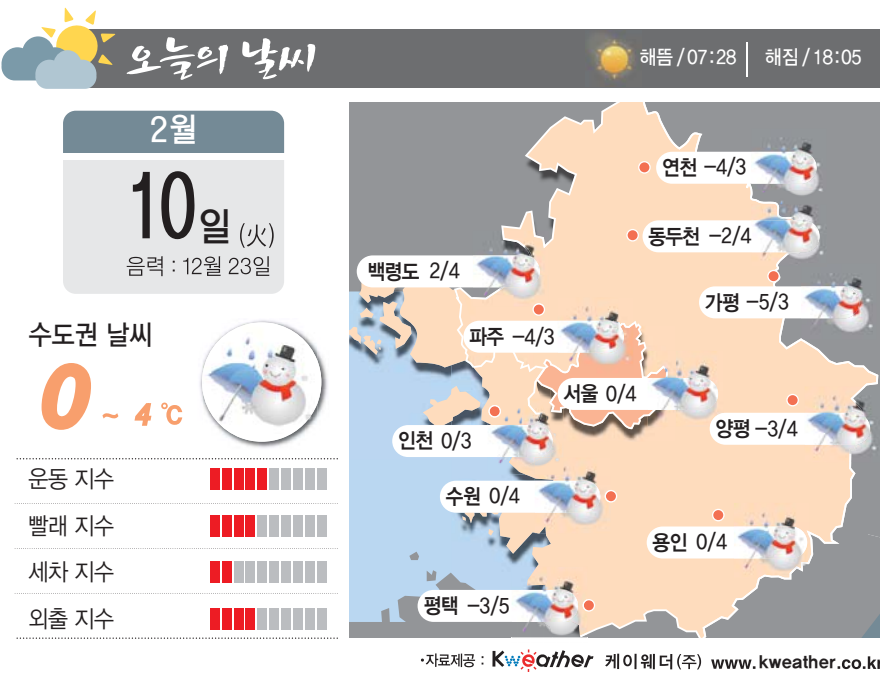
현을 중시하는 젠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HTMX 캠페인은 ‘전 애인보다 더 핫한(Hotter Than My EX)’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을 불닭 고유의 매운맛에 빚대어 표현했다. 남친, 여친보다 불닭 브랜드가 더 강렬하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불닭 특유의 매운맛을 단순한 미각적 자극을 넘어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을 상징하는 문화적 코드로 확장했다.

차별화된 메시지에 걸맞게 모델과 음악 역시 인상적이다. 이번 캠페인의 모델로 친근하면서도 감각적인 K-팝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가 전면에서 나선다. 뮤직비디오 형식의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돼 전세계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은 이번 캠페인과 연계해 Hotter Than My EX 챌린지’를 틱톡 등 글로벌 숏폼 플랫폼에서 전개한다. 소비자 참여형 챌린지를 통해 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불닭브랜드의 화제성과 구매 효과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Hotter Than My EX’과 연계해 불닭브랜드 한정판 패키지도 런칭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자료제공: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설탕과 밀가루는 죄가 없다



연 윤 열 의  
푸드톡

아침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 점심의 국수 한 그릇, 간식으로 빵과 과자 한 봉지. 설탕과 밀가루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다. 그런데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한다. 이유는 늘 비슷하다. 가격담합 의혹이다. 국내 설탕과 밀가루 시장은 몇몇 대기업이 70% 이상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구조다. 이런 시장구조 하에서는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소비자의 시선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설탕과 밀가루 제조업체들은 여러 차례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과징금도 부과됐다. 그런데도 비슷한 논란은 반복된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원재료 가격과 완제품 가격 사이의 괴리다. 국제 원당 가격이 떨어지고, 밀값이 내려가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반대로 국제 시세가 오를 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다.

과점 시장에서는 명시적인 담합이 없어도 ‘눈치 게임’이 가능하다. 누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따라간다.

법적으로는 증거가 없으니 담합이 아니지만, 소비자가 보기에는 너무 정교한 우연처럼 보인다. 문제는 하방 경직성이다. 원당 가격이나 밀값이 오를 때는 즉각 반영되지만, 내려갈 때는 조용하다. 기업은 재고, 환율, 인건비 같은 이유를 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정위의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담합을 잡는 것보다, 담합이 필요 없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설탕과 밀가루 가격은 단순한 생활물가를 넘어 국민건강과도 직결돼 있다. 설탕 섭취증가는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국내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설탕세’ 또한 국민 정서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영국은 당류 함량이 높은 음료에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했고, 그 결과 제조사들은 경쟁하듯 당을 줄였다.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기업의 레시피를 바꾼 것이다.

밀가루도 마찬가지다. ‘글루텐 프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밀가루가 마치 건강의 적처럼 취급되지만, 정작 국내에서 글루텐이 문제 되는 사람은 극소수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싼 대체식품이 넘쳐난다. 이 역시 시장 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이 만든 병폐다. 결국 설탕과 밀가루가 문제라기보다, 가격을 둘러싼 구조와 제도가 문제다.

원가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 반복되는 담합 의혹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제도, 그리고 건강 문제와 가격 정책이 따로 노는 정책 환경이 맞물려 있다. 해법은 단순하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과점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설탕세와 같은 건강 연계 가격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설탕과 밀가루는 죄가 없다. 그 위에 얹혀있는 가격과 구조가 문제이고 그 구조를 오래 방치해 온 우리의 무관심이다.

/식품기술사·푸드테크 칼럼니스트

## ESS에 달린 K-배터리의 다음 행보



김 지 수 쥔  
원 관 회  
(산업부)

북미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생존여부는 전기차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달려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변화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SS를 중심으로 생산 구조를 이미 상당 부분 전환중이다. 북미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기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를 ESS용으로 전환해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등 현지 공장을 기반으로 ESS 배터리 생산과 수주 경쟁을 쏘고 있고, 삼성SDI는 각형 NCA 기반 ESS 전용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프로

젝트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SK온 역시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 LFP로 전환하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같이 국내 기업들이 북미 현지 생산 확대와 ESS 중심의 제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ESS 시장의 경쟁 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쟁의 무대만 전기차에서 ESS로 옮겨졌을 뿐, 여전히 핵심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와 시스템의 직접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ESS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공급 경험을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 장벽 속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공급망 내 역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영향력을 놓지 않는 이유다.

이런 구도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는 경영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만큼, ESS용 LFP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고 비용 구조와 투자 효율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생산과 투자 전반에서 효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경쟁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등 고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는 차세대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들 시장이 2~3년 이후에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분야에서는 하이니켈 NCM 기반 배터리에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ESS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다음 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무대에 가깝다. ESS 경쟁력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시장을 유지해야만 전고체 배터리와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라는 다음 무대에 설 수 있다. 지금 ESS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10일 (음 12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60년생 어려움을 이기고 여유를 찾게 됩니다. 72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사람을 배려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84년생 외출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소

49년생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습니다. 61년생 주변사람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73년생 언론이나 해외관련 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85년생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호랑이

50년생 이동수가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62년생 기회를 잡기 위해선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74년생 인가와 명성이 올라가는 하루입니다. 86년생 좋은 일이 생겨도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토끼

51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극복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힘들겠지만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75년생 계속 노력하면 곧 좋은 일이 생깁니다. 87년생 더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

52년생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듭니다. 64년생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하는게 좋습니다. 76년생 서두르기 보다는 느긋한 대처가 더 필요합니다. 88년생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뱀

53년생 원래 목표대로 계속 정진하세요. 65년생 결정이나 약속은 오후가 좋습니다. 77년 실수로 인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89년생 주위에 이름이 알려지고 칭찬받게 됩니다.



말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양

55년생 친구를 만나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67년생 재물운이 있으니 빠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79년 물다라도 두들겨 보고 건너세요. 91년생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실행과 추진력이 더 필요합니다.



원숭이

56년생 작은 거래는 취하고 큰 거래는 신중하세요. 68년생 덕을 베풀면 오히려 큰 도움을 받습니다. 80년생 주변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92년생 내 생각보다는 부모님 말씀을 듣는게 길합니다.



닭

57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뒤로 미루세요. 69년생 그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81년생 일이 잘 안 풀릴땐 그냥 쉬는 것도 좋습니다. 93년생 지나친 기대보다는 내실이 필요합니다.



개

58년생 인연운이 있으니 낯선 이를 만나도 즐겁습니다. 70년생 변화를 모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2년생 작은 이익을 양보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94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세요.



돼지

59년생 쉽게 부탁을 들어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71년생 자만심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83년생 내 가까운 곳에 인연이 있습니다. 95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 김상회의四季

### 소리장도, 웃음 뒤의 칼

중국 병법 36계 가운데 소리장도笑裏藏刀 전략, 웃음 속에 칼을 숨긴다. 이 말은 상대를 속이거나 방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계략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삶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세상을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도 있다. 사람의 말과 표정 태도는 언제나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관점은 사주팔자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같다. 팔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그 이면에 흐르는 구조와 기운을 읽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지금 어떤 흐름 속에 놓여있는가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으로 보고 말투가 부드러운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표정이 무뎡뎡하면 차갑다고 단정한다.

사주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과 속으로 작동하는 기질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외향적으로 밝아 보여도 내면은 예민할 수 있고, 조용해 보여도 속은 강단 있는 경우가 많다. 명리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때로는 감정을 숨기거나 한발 물러서야 할 때도 있다. 운이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드러내는 것이 좋고, 운이 약하거나 충돌이 많은 시기에는 조용히 힘을 비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웃음 속에 칼을 숨긴다는 표현을 자기 보호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36계의 소리장도와 명리학이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사람은 한 가지 얼굴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웃음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말만 듣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조언이다.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자신의 운의 흐름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소리장도와 팔자학이 함께 건네는 지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학기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4				7
		4						8
						3		
							7	9
6	3							8
1		8						4
4				3				
5								5

					5	9	1	
2	9			4		7		3
1		2						9
7							2	5
3		7		8				5
	2	6	5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가성비에 프리미엄까지 ‘취향존중’ “민족의 명절,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시장이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고물이 기초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진 모습이다.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가격 대비 만족도, 실속과 프리미엄의 균형, 건강과 간편성 등 선물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따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식품·유통업계도 설 선물세트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수요를 겨냥해 맞춤형 상품 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인기 상품을 재해석하거나 명인·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한정판·프리미엄 라인업 등 고급화 전략도 확대되는 추세다. 가성비를 앞세운 실속형 세트부터 프리미엄·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선택의 폭을 넓어졌다. 이번 기획에서는 식품·유통업계가 선보인 설 선물세트 트렌드를 짚고, 소비자 선택의 기준과 함께 달라진 명절 선물 풍경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혜택 넓은 ‘기프트 클럽’ 매출 2배 ↑

### 롯데백화점

우량 고객 대상 특별 혜택 제공  
구매 금액대별로 5~7% 상품권  
온라인 고객 8% 옐포인트 적립

롯데백화점이 명절 기간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 기프트 클럽’이 명절 매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 기프트 클럽’은 명절 기간 식품 선물세트를 합산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은품 등 차별화된 혜택을 주는 멤버십 서비스다. 지난해 추석 처음 선보인 이후, 직전 연도 대비 우량 고객 수가 20% 이상 증가하고 명절 매출 기여도가 역대 최대인 60%대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맞아 혜택 범위를 온라인까지 대폭 넓혀 준비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본판매가 종료되는 15일까지 가입 고객이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대별로 5~7%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몰에서는 17일까지 동일 조건 구매 고객에게 8%의 옐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혜택이 강화되면서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우량 고객 매출은 지난 설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가정의 달, 크리스마스 등 선물 수요가 몰리는 시즌에도 가입 고객을 위한 상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박상우 마케팅부장은 “롯데 기프트 클럽은 고객의 선물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멤버십”이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혜택을 통해 롯데백화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마련된 롯데 기프트 클럽 부스.

/롯데백화점

## 역대 최대 물량에 프리미엄 상품 1300종

### 현대백화점

한우 선물세트 10만여 개 준비

현대백화점이 2026년 설을 맞아 이달 16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점포 식품관과 온라인몰 더현대닷컴·현대H몰 등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현대백화점은 정육·수산·청과·주류·건강식품 등 엄선한 프리미엄 선물 상품 1300여종을 선보인다.

명절 대표 선물인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 물량인 10만여 개를 준비했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1++ 등급 중에서도 최고 마블링 스코어(BMS) No.9 한우로만 구성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 (300만원)과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 세트’ (200만원) 등 초프리미엄 상품을 내세운다.

구이용 세트 물량도 지난 설 대비 30% 이상 늘렸다. 살치살, 새우살 등 고급 부위를 담은 ‘현대 한우 구이용모듬 매’와 스테이크용으로 구성된 ‘현대 한우 스테이크 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200g씩 개별 진공 포장한 ‘현대 한우 소담 시리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담은 ‘현대 한우 소담 모듬 세트’는 26만원, 구이용으로 구성된 ‘현대 한우 소담 매’는 38만원에 선보인다.

과일 선물세트는 고당도·신품종을 중심으로 차별화했다. 사과·배 중심의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사인머스켓, 애플망고, 한라봉 등 디저트 과일 혼합 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비파과 당도 측정을 통해 일반 과일보다 당도가 높은 상품만 선별한 ‘H스위트’ 라인업을 확대했다. 포장재 역시 플라스틱 대신 별집 구조의 100% 종이 완충재 ‘허니쿠션’을 사용해 친환경 가치를 높였다.

수산물에서는 길이 35cm 이상의 굴비로만 구성된 ‘현대명품 참굴비 세트’를 10세트 한정으로 준비했다. 또한 죽염으로 삶간을 한 ‘인산자죽염’으로 만든 영광 참굴비 (33만원)와 조리 편의성을 높인 ‘바로 굽는 영광 참굴비’ (12만원) 등 다양한 프리미엄 굴비 세트를 소개한다.

/손종욱 기자



현대백화점이 2026년 설 명절 본판매에 돌입했다.

/현대백화점



#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sup>+</sup>



논산 생딸기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논산 생딸기주스<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sup>+</sup>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 선택 넓게, 혜택 크게... 명절 맞춤쇼핑

### 롯데홈쇼핑

12일까지 설 특집전 '마구드림 페스타' 할인·적립 대폭 확대... 전용쿠폰까지

롯데홈쇼핑이 경기 불황과 고물가 속 합리적인 명절 쇼핑을 돕기 위해 설 특집전 '마구드림 페스타'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의 체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전 카테고리 걸쳐 할인과 적립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매일 10만원 이상 구매 시 선택형 사은품을 증정하고 매일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대량 주문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적립금을,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는 전용 쿠폰을 지급한다.

TV 방송은 명절 시즌 수요를 반영해 설 특집과 연휴 기간 동안 식품 편성을 평소 대비 50% 확대해 운영한다. 10일부터는 명절 인기 상품인 '진도산 전복'을 비롯해

'정성곳간 소갈비찜', '롯데호텔 LA갈비' 등을 '최유라쇼'를 통해 선보인다. 이어 11일에는 '김나운의 라라쇼'에서 '김나운더 키친 LA갈비'를, 12일 '빅마마SHOW'에서는 '빅마마 갈비찜'을 합리적인 구성으로 준비한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식품과 프리미엄 식품도 다양하게 내세운다. 대표 프로그램 '요즘쇼핑 유리네'는 11일과 18일 건강식품 특집 방송을 통해 지난 방송 매진을 기록한 '여에스터 국민영양제'와 '닥터린파비플로라X알파CD', '정관장홍삼톤샷' 등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바실리사 로열젤리 감로꿀', '메리비 마누카 허니 콕' 등 프리미엄 식품 구성을 확대해 선보일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상품 정보 탐색 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가전, 여행, 명품 등 고관여 상품을 집중 편성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삼성, LG, 로보락 등 주요 가전 브랜드 인기 상품을 엄선해 공개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롯데홈쇼핑이 설을 맞아 특집전 '마구드림 페스타'를 준비했다.

## 정성 담은 피부케어에 K-컬처 감성까지

### LG생활건강

브랜드별 대표제품으로 세트 구성 자개 표현한 명절 한정판 생활용품

LG생활건강은 브랜드 대표 제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세트를 구성했다.

클린뷰티브랜드 '더페이스샵'에서 피부 보습과 진정을 위한 '오토 판테놀 보습장벽 크림 기획세트'를 내놓는다. 본품(60ml)에 증정품(31ml)을 포함해 넉넉한 용량과 밝은 색상을 적용한 제품 디자인이 선물 가치를 높인다.

더페이스샵은 원물 효능에 중점을 둔 스킨케어 브랜드로, 오토 판테놀 보습장벽 크림에는 오토 추출물 성분과 고순도 판테놀 5.5%를 복합 처방했다. 피부 장벽·보습·광채 개선 효과를 갖춰 거칠고 건조해진 피부는 물론 푸석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 준다.

또 부드럽게 발리고 매끈하게 밀착되는 제형으로 설계돼 취침 중 집중관리 마스크로 활용 가능하다. 하룻밤 사이 12시간 피부 재생을 경험할 수 있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에이지 넥다운 배리어 2종 세트'를 선보인다. 에이지 넥다운 배리어 '토너'와 에이지 넥다운 배리어 '에멀전'을 정품으로 담고 에센스, 크림, 아이세럼 등을 소용량으로 더했다. 빌리프만의 허브 전문 기술을 집약한 향노화 제품군을 종합했다.

LG생활건강은 설 명절에만 만날 수 있



더페이스샵 '오토 판테놀 보습장벽 크림 기획세트'



'K자개 핸드케어 선물세트'

는 생활용품 세트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K까치와 호랑이 프리미엄 세트'에는 소나무 배경과 조화를 이룬 까치와 호랑이를 그려 넣었다. 불운은 멀리하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한다. 아울러 샴푸, 바디워시, 치약, 비누 등을 한 데 담아 실용적이다.

'K자개 핸드케어 선물세트'는 한국 전통 공예의 정수인 자개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고급스런 보라색 포장에 매력적이며 핸드워시와 비누로 구성해 일상 속 위생을 돕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실속 늘리고, 취향 살리고... 라인업 강화

### 롯데마트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 30% 확대 차별화된 프리미엄·이색상품 강화

롯데마트가 오는 16일까지 전점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고물가로 인한 실속형 소비와 프리미엄 수요가 공존하는 소비 양극화 트렌드를 반영해, 5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 설 대비 30% 확대해 선보인다. 실제 이번 사전예약기간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과일 세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을 가성비 상품으로 채우고 종류도 2배 늘렸다. 사과, 배, 애플망고 등을 담은 '정성담은 혼합과일' 세트와 '깨끗이 씻어 나온 GAP 사과',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 등을 모두 3만9900원에 준비했다. 수산 부문에서는 롯데마트 단독 상품인 '대천 곱창김 선물세트' 물량을 20% 늘려 2만9900원에 내세운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1+1' 혜택으로 가격 부담을 낮췄다. '청정원 L3호'와 '청정원 L5호'는 교차 구매가 가능하며 세트당 2만5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축산 세트 역시 10만 원 미만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하다. 1등급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



롯데마트가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로 구성된 '한우 정육세트 2호'는 9만9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및 이색 상품도 강화했다. 인기 셰프 최강욱과 협업한 '최강욱의 나야 와규 야끼니꾸 세트'를 14만9000원에, 투썸 최고 등급 한우인 '마블나인 구이혼합세트'를 69만900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슈퍼심영준관촉마케팅팀장은 "명절 선물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성비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 상품을 강화했다"며 "고객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합리적인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애정·감사·풍요... 소중한 마음 전해요”

###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대표제품 혼합 총 7종 선택 선물 패키지에 한국 전통의 멋 담아

롯데칠성음료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델몬트주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 담은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정통 주스의 대명사 델몬트의 대표 제품을 혼합한 총 7종의 구성을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과 만족감을 높일 예정이다.

델몬트 1.5L 페트병 선물세트는 '애정(愛情)', '감사(感謝)' '풍요(豊饒)'라는 한자 속에 과일 이미지를 넣은 한국 전통의

멋을 담은 패키지로 꾸며졌다. '제주감귤·매실·포도' 4본입의 애정 세트, '오렌지·포도·망고' 3본입의 감사 세트, '토마토·망고' 3본입의 풍요 세트 '제주감귤·매실·잔치집식혜' 3본입으로 구성된 우리 가족 선물세트를 포함해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 주스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180ml 소병 제품을 12개씩 담았다. '오렌지·포도 세트', '오렌지·토마토 세트', '감귤·포도·토마토 세트'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을 담은 '델몬트주스 선물세트'와 함께 더욱 뜻깊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하고 다양한 델몬트주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최고의 맛과 품질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델몬트주스 선물세트



## ‘오래 살고 복 누리라’… 韓 대표 차례주



백화수복.

### 롯데칠성음료

청주 ‘백화수복’… 1만원대 합리적 가격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제품이다.

‘백화수복’은 1945년 출시된 이후 오늘 날까지 82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100% 국산 쌀의 외피를 30% 정도 도정 후 사용하고,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며,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다.

우리 민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캡(병뚜껑)에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백화수복은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며,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음용하기에 더 좋다. 제품 용량은 700ml, 1.8l 두 종류로 이뤄졌으며, 할인점,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82년 전통의 백화수복은 조상들이 사용하던 대로 엄선된 쌀로 정성껏 빚어 만든 청주 제품”이라며 “1만원대 전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차례 음식에 잘 어울리는 맛있는 술”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신원선 기자 tree6834@



GS25에서 모델이 설 선물세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 ‘우리동네 선물가게’ 테마 700종 상품

### GS리테일

‘붉은 말 골드바’ 등 다양한 구성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2026년 설날을 앞두고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총 700여종의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올해는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양극화 트렌드에 맞춰 상품 구성을 ‘프리미엄’과 ‘가성비’로 철저히 이원화했다. 실제 GS25 분석 결과, 지난해 5만원 이하 가성비 상품과 20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 매출 비중이 동시에 늘어나며 가격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S25는 ‘병오년(붉은 말의 해)’ 특수를 겨냥해 역대 최다인 18종의 골드·실버 제품을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 말 이

미지를 활용한 ‘붉은 말 골드바’를 최대 1010만원대에 내세운다. 주류 역시 999만 원에 달하는 ‘5대 사포 2016 빈티지 세트’ 등 초고가 한정판 상품을 대거 도입해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

실속형 소비자를 위한 가성비 라인업도 탄탄하다. 5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비중을 전년 대비 40% 늘렸으며, ‘디아블로 원통형 말피에디션’ 등 1만원대 초저가 와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동원 튜나리첵’ 등 통조림 세트는 사전 행사 기간 ‘2+1’ 혜택을 적용해 개당 3만원대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 미니 금손가락이 들어있는 ‘이천 햅쌀 비락식혜캔’ 세트와 미쉐린 맛집 ‘삼원가든’ 협업 HMR 등 이색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기능성 껌으로 안전운전 선물하세요”

### 롯데웰푸드

‘졸음번쩍껌’ 연 매출 200억 돌파

롯데웰푸드의 기능성 껌 브랜드 ‘졸음번쩍껌’이 출시 10년 만에 연 매출 200억원을 넘어서며 대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2014년 수험생·운전자·야간근무자를 겨냥해 출시된 졸음번쩍껌은 시장 침체기에도 매년 매출이 성장했다. 현재 매출 규모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며, 온라인과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의 판매 구조로 목적성 구매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제품에는 천연 카페인이 함유된 과라나추출분말과 멘톨 성분이 들어 있어 구강 점막을 통한 빠른 흡수와 강한 쿨링감으로 각성 효과를 높였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

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롯데웰푸드는 2024년 자극적인 맛을 줄이고 기능성을 강화한 ‘졸음번쩍 에너지껌’을 출시하며 1030세대 공략에 나섰다. 과라나추출물과 타우린 함량을 기존 제품 대비 3배 높이고 비타민 B6를 추가했으며, 무설탕 코팅껌 형태로 섭취 부담을 줄였다. 패키지와 디자인에도 젊은 감성을 반영했다.

현재졸음번쩍껌은▲오리지널▲울트라파워▲에너지껌 등 3종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품을 무료 배포하는가 하면, 부산항만공사와는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 후원 협약을 체결해 안전 캠페인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졸음번쩍껌.

/롯데웰푸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라인업.

/하이트진로

## 오크 숙성기술 기반 프리미엄 증류주

###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 선보

국내 대표 종합주류기업 하이트진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선물세트를 총 3종으로 구성해 다양한 소비자 선택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오크 숙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증류주 라인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품진로 오크25’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됐다. 완성도 높은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은 향과 풍미를 구현한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 선물세트는 12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사용한 제품으로, 375ml 2병과 스트레이트잔 3개를 담았다.

이와 함께 ‘일품진로’ 선물세트는 375ml 13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됐다. 향과 풍

미가 뛰어난 중간 원액만을 사용해 냉동 여과공법과 숙성을 거쳐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일품진로 설 선물세트 3종은 2월 첫째 주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 가정 채널에서 판매된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목통 숙성고를 도입한 이후 오크 숙성 증류주 연구를 지속해왔다.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오크 숙성고를 운영하며 온도·습도 관리와 숙성 환경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해자카드’ 단종  
카드사  
할로 모색  
08



Life

재계  
설 앞두고  
내수 활성화 앞장  
나



## “20년 기다림이 만든 ‘침향’ 선물하세요”

### 정관장

‘기다림 침향’ 매출 200억 돌파  
설 명절 프리미엄 선물로 ‘주목’

정관장의 침향 전문 브랜드 ‘기다림 침향’이 출시 1년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설 명절 프리미엄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기다림 침향’은 지난해 4월 말 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이후 5개월 만에 추가로 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시즌 매출은 전년 대비 3.7배 증가하며 명절 수요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침향은 침향나무가 상처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희귀 수지 성분으로 생성까지 약 20년이 소요된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등에도 등장하는 귀한 소재로, 세계 3대 향 중 하나로 꼽힌다.

정관장 ‘기다림 침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등재된 인도네시아산 침향(Aquilaria malaccensis)만을 사용한다. 국내 최초로 유전자 분석 기술을 적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기관(BKSDA)의 인증을 받았으며 공급계약부터 수입 통관까지 9단계 이력 관리를 통해 원산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기다림 침향’

제품은 ‘기다림 침향액’, ‘기다림 침향환’, ‘기다림 침향 평심환’, ‘기다림 평정 에디션’ 등으로 구성됐다. 침향액은 고향 침향을 담은 순수 달임액이며, 침향환은 전통 소재를 배합한 환 제형 제품이다. 평심환은 인도네시아 최고 등급의 ‘SABA H 침향’을 사용했으며, ‘평정 에디션’은 흙 프래그런스 브랜드 메누하와 협업했다.

한편, 정관장은 오는 18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명절증후군 ‘썩~’ 고향량 비타민 충전

### 종근당

비타민B 충전… 피로회복효과 극대화  
말초신경병증·간 기능 개선 성분 함유

매년 명절 끝에는 이른바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긴 연휴 동안 교통 체증, 장시간 운전, 가사 노동 등으로 쌓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일상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종근당은 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벤포벨 에스’를 선보인다.

벤포벨 에스는 일반의약품으로 기능성 활성 비타민을 고향량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최초 말초신경병증 치료 성분 메코발라민과 간기능 개선 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을 동시 함유한다.

손상된 신경세포를 재생해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는 메코발라민 성분을 500mg 추가하고, 활성 비타민 벤포티아민 100mg, 뇌혈관 장벽(BBB)을 통과해 뇌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

을 주는 비스벤티아민 30mg 등을 더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 우르소데옥시콜산은 비타민 표준제조 기준 최대치인 60mg으로 높이고 타우린, 메티오닌, 오르티산 등도 복합했다. 또 비타민 B군을 강화해 피로 회복 효능을 극대화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벤포벨 에스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영양 불균형 등으로 현대인 건강 관리에서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B군과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명절증후군 대표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 같은 신경통, 뭉친 근육, 눈의 피로, 구내염 등을 개선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고함량 활성비타민 ‘벤포벨 에스’

## 근육 통증 쿨하게 해결… 연휴 ‘필수템’

### 유한양행

통증, 붓기 감소… 냉찜질 효과까지  
흡수 빠른 겔 제형에 3구 롤러볼 장착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 쿨겔’이 연휴를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상비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육 및 관절의 외상성 염증, 타박상 등에 효능을 갖춰 장거리 이동이나 야외 활동 중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티푸라민 쿨겔은 유한양행이 최근 90여 년 전통의 장수 브랜드 ‘안티푸라민’에서 새롭게 선보인 제품이다.

안티푸라민은 연고, 첩부제, 로션 등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되면서 ‘국민 소염진통제’로 브랜드 입지를 넓혀 왔다. 현재까지 총 10여 종의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겔 제형 제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티푸라민 쿨겔은 디클로페낙 성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해 통증과 붓기 감소에 효과적이다. 강력한 냉찜질 효과

를 가진 멘톨 성분도 더해졌다. 끈적임이 적고 빠르게 흡수되는 겔 제형을 피부에 바름과 동시에 시원한 느낌이 전달되고 통증이 완화된다.

특히 안티푸라민 쿨겔에 적용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3구 롤러볼’은 마사지 효과와 약물 도포를 모두 구현한다. 내용물을 손에 묻히지 않고도 넓은 부위에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약물 냄새가 적어 기존 파스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젊은 층이나 여성 소비자들의 선호도 또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의료 및 처치 현장에 적합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신제품을 지속 연구개발해 안티푸라민 브랜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안티푸라민 쿨겔’▶

## 먹는 순간 피부건강·일상활력 동시에

### 동국제약

콜라겐, 비타민C, 비오틴 등 함유  
피부세포 유사구조로 체내 흡수율↑

동국제약의 ‘엘리나C 핑크로제’는 콜라겐, 비타민C, 비오틴 등을 함께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피부 건강과 일상활력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다.

동국제약은 엘리나C 핑크로제 주성분으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AG를 처방했다. 13년 연구개발을 거친 특허 성분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부 보습 및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AG는 12주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피부 총 탄력, 순수 탄력, 생체 탄력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또 눈가 주름 육안 평가, 피부 거칠기 등 총 8가지 지표에 대해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해당 원료는 피부 세포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 311Da(달톤) 수준의 초저분자 콜라겐을 적용해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엘리나C 핑크로제는 비타민



‘엘리나C 핑크로제’

C와 비오틴을 각각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 300%로 함유하고 있다.

아울러 분말 제형을 갖춘 막대형 제품으로 출시돼 하루 한 포를 물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상큼한 자몽맛과 저당도 특징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콜라겐 시장에서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개별인정형 원료로 차별화된 ‘엘리나C 핑크로제’가 피부 속까지 채우는 촉촉함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